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9호 [우계 제25242호] 주제 105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철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철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 김장광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2013년에 일떠선 공장에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건설된 공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최첨단정밀기계제품연구개발과제를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길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의 자욱이 어려여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공장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강혁명주의정신으로 부닥



대한 문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더 많이 양성할데 대한 문제 등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히 요구하는 최첨단정밀기계제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것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예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열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 알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켜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출고나감으로써 정밀화, 지능화된 최첨단기계제품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특히 총성의 70일전투기간에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삼반년도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가공 및 조립장, 전자도서관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기계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공장에서 만든 기계제품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크게 은을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땅의 의도대로 과학기술을 증시하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철저히 밀착시킨데 있다고 하시였다.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을 최첨단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사업도 잘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조국건설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더 많은 기계제품들을 생산할수 있게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호류선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새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제품들의 정밀화, 지능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기계제품제작에서 자체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본사정치보도반

